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7년 포어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롬1:17, 레19:2)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안식년)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조선지서 강해 - 아모스**

하나님의 백성

(아모스 2 : 4~16)

원로목사 **이종윤**



이스라엘과 유다를 사방으로 둘러싼 이방나라들이 하나님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은 후 아모스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므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1. 율법을 무시한 죄

“이는 그들이 여호와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 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4절).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판단하실 때 반드시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백성들은 율법 없이 망하거나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따라 판단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멸시하며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는 원죄인 교만입니다. 교만죄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죄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의 기도대상은 자기 자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찾는 기도를 합니다.

2. 우상에 미혹된 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례를 무시하더니 마침내는 조상들이 하던 것과 같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는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셨지만 율법 이전에 양심법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부패하고 마비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거나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눅 12:48).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받은 자들은 율법으로 판단하시지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결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성경을 거부하는 것은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곧 우상의 자리로 빠지게 됩니다.

3. 도덕성의 부패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6절).

인간성을 상실한 이스라엘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도덕성이 타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 죄를 범했습니다. 타락한 도덕성은 이스라엘백성을 마치 이방사람과 같이 하나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1) 경제적 범죄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6절).

상아궁에 사는 아합왕이나 붓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악랄한 죄를 범했습니다. 이스라엘 전부가 자기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위해 나뭇의 조그만 포도밭까지 빼앗은 것은 그의 마음에 탐욕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 불의한 재판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7절).

이스라엘의 또 한 가지 죄는 박해받는 이의 정당성을 부인한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의를 말하는 것이며 재판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재판을 공평하게 못하는 나라는 이미 뿌리가 흔들린 나라입니다.

(3) 부도덕한 죄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8절).

하나님은 해지기 전에 이웃의 전당물을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출22:26-27). 그런데 이들은 돌려주지 않고 그 옷위에 누워 잠을 자고 또한 부당한 벌금으로 열락을 취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일입니다.

4. 하나님의 심판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13절).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족을 멸하게 하셨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16절).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죄, 대신관계와 대인관계에서 범한 죄, 율법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천대하고, 인권을 무시한 죄, 잔인한 행위 등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죄를 범하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못짓을 죄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6.25 발발 67주년 2017 흥해작전 승전 감사예배

- 오늘 찬양예배 시 -

오늘은 동족상잔의 비극인 6. 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7주년이 되는 날이다. 6. 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오늘, 북한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의와 평강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고 미워한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날이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김정은의 대를 이은 폭정 아래 67년의 긴 세월 동안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북한에 속히 신앙의 자유가 임하고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폭정이 그쳐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합심하여 기도하여야겠다.

또한 오늘은 지난 6월 19일부터 6일간 은혜의 말

씀 대장정으로 계속된 흥해작전 새벽기도회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승전감사의 날이다. 오늘 찬양예배는 흥해작전 승전 감사예배로 드린다.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6월25일을 크리스찬들이 지난 6일간 계속된 흥해작전을 통해 받은 말씀의 은혜를 품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을 위해,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 민족을 위한 제사장 된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두가 승전한 은혜 누리도록 기도한다.

교육국에서 자체 실시한 백일장과 그림그리기는 어제 마감하고 오늘 심사하여 다음 주에 부서별로 시상한다.



말씀 회복이 교회 회복!

요한계시록강해
이종윤 원로목사

주일 오후 5시 찬양예배 시

선교회·전도회 회장단

다음은 지난주에 발표된 선교회, 전도회 회장단에서 누락된 명단이다.

- 바 울선교회 회 장 : 김형상 집사
- 마리아전도회 회 장 : 석춘희 권사

Bus Metro Walking

운동에 동참합시다!

2017 하계 국내 전도단 모집

2017년 7월 17일(월) ~ 20일(목) / 강원도 고성 대진중앙교회

교회는 혼란한 상황에도 전도를 멈출 수 없다는 판단 아래 2017 하계 국내전도단을 파송하기로 결정하고 전도단원을 모집한다.

국내 전도 일시는 2017년 7월 17일(월)부터 20일(목)까지이며 장소는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대진중앙교회이다.

국내 전도에서 활동 할 내용은 대진중앙교회의 성경학교,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선교, 이미용, 전도, 전도대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사

봉사 등이다.

전도기간이 덥고 고온에 힘들더라도 주님의 대 사명이며 우리 서울 교회 3대 목표 중 하나인 「만민에게 전도」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하는 성도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다음 주일(7월 2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

신청 및 문의는 서준권 목사에게 바란다.

예수의 비유

씨와 토양들 IV

(마 13:1-9)

가시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은 토양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졌을 때 뿌리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땅에 가시나무 뿌리가 있었습니다. 곡식과 가시가 함께 있으면 가시가 훨씬 빨리 자라고 크게 자라는 법입니다. 가시밭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믿음이 금방 성장하고 남보다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고 봉사도 많이 합니다. 가시는 곡식보다 빨리 자라나고 빛과 열을 더 많이 흡수해 갑니다. 그런데 줄기도 있고 잎도 이고 심지어는 꽃봉오리까지 있으나 정작 열매가 없습니다.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개성이 독특하고, 깊은 사고를 하고, 기도 역시 능력 있게 하고, 봉사도 부지런히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밑바닥에 가시 뿌리가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가시 뿌리는 세상의 염려입니다. 세상일을 지나치게 염려하면 믿음에 손해가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염려 때문에 가시밭에 뿌리를 키워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또 가시밭은 재리의 유혹이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함은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돈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에 영혼을 팔아버린 파우스트처럼, 팔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처럼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보지 못하고 물질 때문에 영혼을 팔아버리는 자리에 서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처럼 뿌리를 내렸고, 동지도 틀었고, 열매를 맺은 것 같은데 가시뿌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죽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는데 도중하차를 하면 출발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시 뿌리가 있다면 당장 뽑아내야 합니다.

옥토

옥토에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열매를 보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비유들을 공부하며 우리 가운데 격정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래도 길가에 있는 밭과 같고 돌짜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데 어찌면 좋습니까? 내게는 옛날부터 습관적인 죄가 있고, 도박이 있고 범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악한 마음과 이중인격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러면 나는 구원이 여망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비록 길가밭 같고, 가시밭 같고, 돌짜밭 같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마음을 개간하면 됩니다. 잡초를 뽑아내고 자갈을 긁어내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나 아닌 어느 누구에게도 그 사람은 도저히 소망이 없다고 낙인찍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맺는 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겔 36:25-27)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더러운 것과 자갈들과 가시들을 뽑아주시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마를 땅을 걸으리라



지난 6일동안 진행되었던 2017 홍해작전을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린다.

서울교회에서 홍해작전을 처음 시작했던 1992년부터 지금까지 올해처럼 기간이 축소되어 시행되었던 적은 없었다. 사실은 이마저도 하지 못하면 어쩌나 우려 했지만 기도 가운데 시행키로 결정하고, 시행한 후에는 뒤돌아 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며 한 마음으로 나아갔다. 공중 권세를 두려워한다면 결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교회가 불같은 연단 가운데 있으므로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하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아쉬웠지만 2017 홍해작전은 그 어느 해보다 말씀에 집중하고 열렬한 기도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지난 6일 동안 말씀을 증거하신 이종윤 원로목사님은 사도행전에서 본문을 발췌하여 초대교회의 위기와 문제 해결을 통해, 오늘 유라굴로 광풍의 한 가운데 서있는 서울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나아가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를 마음 속 깊이 새기게 하였다.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120문도들이 모여 성령을 받고 말씀이 흥왕하므로 가히 폭발적인 전도가 이루어져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3천명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나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므로 갈등과 반목이 있었고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로 인한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과 행함으로 주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했다.

한 사람의 잘못된 리더십이 공동체를 어떻게 추락시키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누가 서울교회를 두고 갈 길을 잃었다고 하는가? 서울교회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시금 교회의 3대 목표인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교회로 돌아가

종교개혁가들의 가치를 이어갈 것이다. 지난 날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도록 받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다시 한 번 덧입으며 한국교회를 섬기고 열방에 복음을 선포하며 약자를 마음껏 섬기는 교회로 거듭나리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 홍해작전에서 받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교회사역에 우리 삶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강조할 것을 강조하며 버려야 할 것을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이다.

선과 악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호인이 아닌 인이 되어 말씀의 반석 위에 진리를 드높이자. 또한 교회의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이 상황을 아시고 보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자.

서울교회의 홍해는 갈라졌고, 이제 곧 마를 땅을 걸으리라. Soli Deo Gloria!!!

허숙 권사(편집부)



· 최규초 - 오늘 홍해작전 2일차 말씀과 기도로 출발하며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리며 내일도 온 가족은 다락방이 여호와와의 열심으로 충만하시길 소원드립니다.

· 최종희 - 아멘! 인천에서도 일산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오신 집사님, 연세 많으신 권사님과 이제껏 뵈지 못했던 집사님을 뵈면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서울교회 홍해는 이미 갈라졌음을 믿습니다!

· 이영자 - 은혜의 강물 흘러 넘쳐 쓰레기모물 깨끗이 정화되고 순화되기를 손모아 기도합니다~

· 차영도 - 설교를 들을수록 은혜가 됩니다. 지난 6여년의 세월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 김찬진 - 홍해작전 역사상 첫 날보다 둘째 날이 더 많이 오신 일은 처음입니다.

· 이홍숙 - 아멘 ~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 김정제 - 아멘~~ 새벽에 그동안 우리쪽으로 오길 눈물뿌려 기도했던 집사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





손태현 집사 (홍해작전본부)

2017년 홍해작전이 6월19일 (월) 이종운 원로목사님을 감사로 모시고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극도의 혼란에 빠져 올해의 홍해작전은 아쉽지만 일주일 만에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흥해를 건너야하는 일정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매년 6월 6일이면 시작되어 3주간 진행되는 홍해작전의 개전을 기다리던 성도들은 일주일의 시간표 앞에서 다급한 마음이었지만 교회의 상황은 더욱 긴박하여져서 개전 하루 전에는 주일예배도 불가능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주일 새벽까지 교회 현관에서 농성을 하며 전교인들의 예배처소인 교회의 현관에서 농성을 하며 예배를 막으려던 세력들은 주일 밤 홍해작전을 막겠다는 통보로 홍해작전 본부를 긴장하게 했지만 기도 속에 개전한 홍해작전은 첫 날부터 순항이었으며 둘째 날부터는 더 많은 성도들이 분당을 찍 떼운 가운데 흥해는 갈라지기 시작 하였습니다.

저희 성도들은 6년여의 아까운 세월을 도둑맞은 억울함과 분노는 뒤로한 채 교회 회복의 염원을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인들 막으리까.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찬송부터 눈물과 함께 벅찬 오르는 감격을 주체치 못하였습니다. 그간 말씀에 굶주리고 심령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첫날 주어진 ‘성령강림의 약속. 사도행전 1:1-11’의 말씀은 저희들의 갈급한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맞게 해 주셨으며 원로목사님께서서는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주시사 하면 안 되고 “제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장석남 목사님의 눈물어린 기도로 시작된 이틀째 ‘박해 중에 당할 수 없는 사람. 사도행전 6장 8-15’ 말씀은 우리만 듣기에는 너무 아까운 귀한 말씀이어서 오랜 시간 성경중심 말씀을 듣지 못하면서도 그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함께 하지 않는 반대쪽 성도들의 영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절로 갖게 해주셨습니다.

다행히도 첫날보다 무려 100여명 더 많은 성도들의 참석으로 서울교회의 회복에 한 걸음 다가가고 있구나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조할 것 보다 주변적인 것을 강조한 이틀. 사도행전 4:5-11’의 셋째 날 말씀은 서울교회목회이념과 전략을 다시 되새겨 교회의 일관성을 찾아 사명 다하는 교회로 회복시켜 후손들에게 개혁교회의 보수가 될 아름다운 교회를 전할 수 있도록 전해지도록 교회를 지켜야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한 날들이었습니다.

넷째 날 ‘성장 중에 생기는 위기. 사도행전 21:17-26’의 말씀은 정통개혁교회로서의 모범을 보여 온 서울교회가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가 어느 소명 의식 없는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삼킬 것을 찾는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 우리의 죄 때문이요 기도가 부족해서였음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 몸과 마음이 찢기고 상하면서 도 전력 다 하여 교회를 지키시는 모든 개혁성도들이 하나님중심, 성경중심, 교회중심의 목회이념을 따라 서울교회가 한국교회의 성화의 전범이 되고 총회, 노회도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의 기도처럼 항상 개혁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흥해를 건널 수 있게 하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승전의 기쁨이 우리의 염원인 교회회복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7월 1일(토) 사랑의 쌀, 울란바토르배이사회 설교한다.

■ 12교구 임연주 성도(임상헌 장로 서희숙 권사의 3녀) 미국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대 로스쿨 졸업후 2017년 6월 뉴욕주 변호사 자격 정식 취득 현) 뉴욕 맨하튼 소재 Simpson Thacher & Bartlett 로펌 근무

■ 득남 : 5교구 정재용 성도, 임혜원 성도 (임범창 집사 이정애 집사 장녀 가정)

■ 득남 : 14교구 박상훈 집사 이해원5 성도

■ 득녀 : 16교구 경호진 성도 홍서연 성도 (홍일성 장로 이명아 권사 장녀 가정)

■ 금주식사제공 : 이관규 장로, 이순영 권사 (이겸손 집사, 이진영3 집사)가정 김태수 집사 김은희3 권사 가정 (범사에 감사하며)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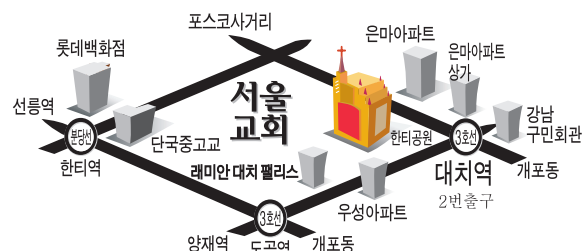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우리 앞에 있는 흥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2.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3. 맥추감사주일(7월 2일)을 앞두고 금년도 상반기 동안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킬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짧은이예배	오후 2시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분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분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